

종합

내년 G20정상회의
한국 개최 확정

한국이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은 25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내년 G20정상회의 개최지를 확정, 발표했다.

G20정상들은 향후 G20 정상회의를 경제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는 정례회 이후 사실상 첫 개최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국으로는 우리 정부가 나중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인건 송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내년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되면 유사 이래 최대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셈이다.

전남 도민 삶의 질 높이기

정책 모니터단-공무원 워크숍

전남도는 25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과 관계 공무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도민 삶의 질 높이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부 모니터 단의 정보공유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현대에는 정보의 홍수시대로 인터넷이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최신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혼자서만 알고 활용한다면 개인이나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각자가 터득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꼼꼼한 여성의 시각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발굴, 전남도의 생활공감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뒤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10년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 지부장에 이경훈
중도 실리 택했다

급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이 15년 만에 투쟁보다는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집행부 수장을 선출하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현대차노조는 1차 선거에서 1.2위를 차지한 중도실리 노선의 기호 1번 이경훈(49) 후보와 강성 성향의 기호 3번 권오일(43) 후보가 치른 결선투표에서 이 후보가 전체 투표자 4만288명(투표율 89.8%, 4만4천869명) 중 2만1천177표(득표율 52.5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후보는 1만8천929표(46.98%)를 얻는데 그쳐 2천248표의 표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중도 실리 노선을 추구하는 현장노동조직인 전진하는 현장노동자회(전현노)에서 출마했다. 중도 실리 후보가 당선되는 1994년 이명박 전 노조위원장 당선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공무원 정치중립' 대책 나섰다

정부 '정치운동 금지' 구체화 등 법 개정 검토

투·개표상 불법·불공정 행위 조사도 착수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과 관련,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개표상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등 단기 대책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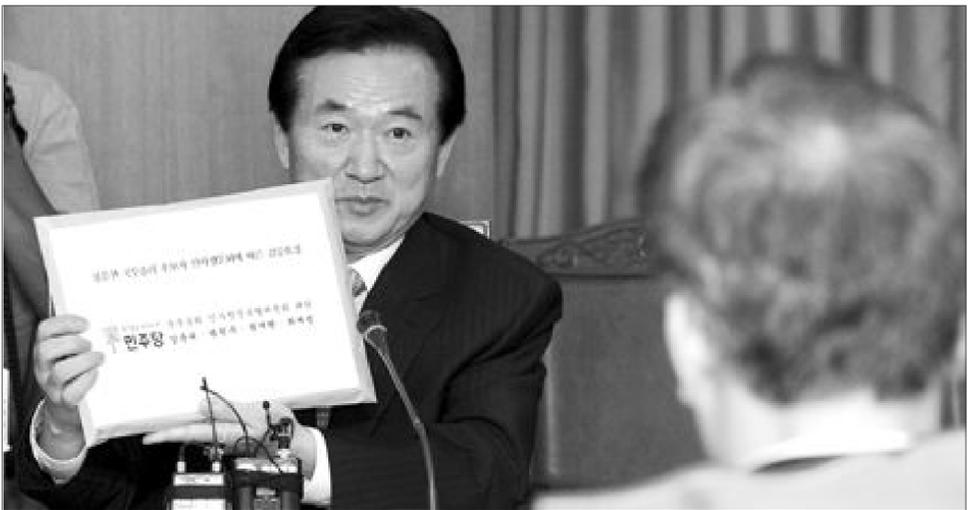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

다"며 "법 체계상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제65조)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일부에서 투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비조합원 이름이 투표명부에 기재되는 등 총 30여건의 불공정 사례를 신고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추가 조사와 신고 등을 거쳐 투·개표 상황에서의 각종 불법·불공정 사례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근무 중 투표 행위와 같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정운찬후보 세무자료 제출하라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백재현, 최재성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수송동 국제청을 방문, 백용호 국제청장에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3의 소득원 의혹'과 관련 세무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별관논란으로 생긴 상처
이젠 치유하고 힘 모을 때"

이병훈 문화도시 추진담당

"오는 10월께 별관의 준치 방식을 포함해 아시아문화전당의 향후 건립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담당은 2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추진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전당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 별관논란으로 생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보존하는 두 개 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갈등을 봉합하고, 문화전당의 공사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젠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해 문화전당 건립에 힘을 모아 줬으면 한다. -별관 준치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별관 구조안전 진단, 개념설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필요하다면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 계획수정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항우 기장 큰 과제는. ▲5~18 광구항쟁의 가치, 문화전당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별관의 설계는 문화전당의 설계자인 우규승씨에 맡기는 것이 좋다.



다른 설계자가 나설경우 전체 설계상 혼란이 올 수 있다. -별관의 준치 방식은. ▲지금 게이트만, 3분의 1 이상 준치안 등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구체적인 보존방법은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며 합의정선에 따라 시민 여러분도 이런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추진단의 광주 이전을 바라는 여론이 있다. ▲직원 대부분 고향이 광주가 아니다. 추진단 이전에 따른 직원 숙소 등 후생복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 문화전당 공사가 진행되고 일이 많으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빛의 만평 - 김중두



앞으로 이래야 할지도 모르겠다

순천 정원박람회에 경전철 달린다

첨단 시스템 갖춰 무인운전

순천시-포스코 MOU 체결

순천시는 오는 2013년 순천만에서 열리는 국제 정원박람회의 이동 수단을 포스코가 개발한 친환경 신개념의 소형 경전철(PRT: Personal Rapid Transit)로 정하고 노란기 시장이 25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포스코 이동회 대표이사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경전철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제어시스템을 갖춰 무인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경전철이 개발 이후 실용화되기는 순천정원박람회가 국내에서 처음, 여기에서 100% 전기에너지를 사용하

는 무공해 저소음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도 잘 살릴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경전철이 시설될 구간은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인근까지 4.4km로, 순천시는 600억원을 들여 2010년 8월에 착공, 2012년 8월까지 완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2013년 4월 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춰 실제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의 생태환경,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가 지향하는 주제에 맞춰 신개념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PRT를 운행하기로 했다"며 "PRT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자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시설

지역민들에 희망 심어준 KIA 타이거즈

KIA 타이거즈가 마침내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다. 여러 차례 좌절을 겪은 끝에 얻어낸 한국시리즈 직행이어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동은 더욱 크다. 지난 몇 년 간 KIA는 부진한 성적으로 약체 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도 시즌 초반 3연패 부진을 딛고 한동안 선두를 질주하다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1위 수성에 성공했다.

지역민들은 내친김에 한국시리즈 'V10'을 열망하고 있다. 12년 만에 무등경기장에서 열리게 될 한국시리즈는 우리 모두의 축제 한마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감동을 안겨 줬다.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도 광주 무등경기장에는 호남의 한을 대변하는 '목포의 눈물'이 울려 퍼졌고 태대 야구단의 호쾌한 야구는 호남인들에게 좌절을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심어줬다.

올해도 KIA의 선전은 지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가적 아픔에 경기 참채와 실업난에 시달리던 지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북돋워 주는 율환역할을 했다.

그러나 KIA가 1위를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등경기장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난 1965년 지어진 무등경기장 야구장은 전국에서 가장 초라한 구장으로 꼽히고 있다. 관중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마음 놓고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도 못하다.

광주시가 평택 야구장 신축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나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지역민들의 지혜를 짜내 명문 구단의 위상에 걸맞은 야구장 신축을 기대한다.

'만성적자'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지방공항이 심각하다.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적자를 냈다고 한다. 광주, 여수, 무안공항 등 광주-전남지역 3개 공항도 모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흑자를 내던 광주공항도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 11억5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막대한 국민 세금 들여 건설하고도 이용 실적이 없어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의 문제는 과거 정권마다 정치적 목적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건설한 데서 비롯됐다.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경쟁적으로 따내겠다는 일념에서 마구잡이로 지은 공항들이 이제는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것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예물단지로 전락한 지방공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우선 양양공항이나 울진공항과 같이 이용객이 없어 개점휴업 상

대인 지방공항은 과감히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접한 공항 간의 통합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기권이 취항하지 않는 공항은 부족한 항공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시설 등으로 과감히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단지적으로는 지방공항에 각종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저가 항공사 취항 유도, 공항 이용료 대폭 할인, 공항 주변 개발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호남 고속철 경유와 무안 한중산단의 조기완공 등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다시는 정권의 이해와 지역 이기주의가 맞물린 무분별한 국책사업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벌금 못 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대체

특례비 시행- 30일내 신청해야

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명수배자를 포함해 특례비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신청일로부터 21일 안에 허가하면 신청자는 교도소에 갇히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번기 일손돕기, 재해복구지원, 연탄배달, 생애복원, 등산로 정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육 시설 정비 등 노역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머타임·정시퇴근 본격 논의 돌입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고 정시퇴근 문화와 부당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녹색성장 관련 정부와 경제·산업계 파트너십 기구인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는 25일 오후 서울 팔레스트호텔에서 '서머타임제 도입과 근로문화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집중 논의를 벌였다. 이들 의제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여부를 검토되고 나서 근로시간만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경제, 노동계와 머리를 맞댄다는 차원에서 채택됐다.

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해 1천326억원의 편익을 얻으면서 정시퇴근도 함께 실시해 근로자의 삶을 여유롭고 유익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방식을 유연화하면 근로자가 평생학습을 하면서 일·가정 양립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로 유한김병리의 자율출근제 등 새로운 근로문화에 이끌어가는 기업의 사례도 소개했다.

위원회는 서머타임과 정시퇴근 등 이번에는 논의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서머타임 도입을 위한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점을 찾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설·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대우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다자민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